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금리인상으로 투자수익 개선 기대

□ 인민은행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에 따라 보장성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.

- 10월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년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.
- 이에 따라 한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금리수준과 같아짐에 따라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 경쟁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예금 및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자산 대부분이 은행예금과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보험자산운용 특성상 향후 투자수익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.

- 약 4조 3천억 위안의 총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80% 이상의 자산이 은행예금 및 채권에 투자되고 있음*.

*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, 보험업계의 총자산은 올해 8월 기준 은행예금 29.7%, 채권 50.5%, 주식/펀드 16.9%, 기타 2.9%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번 금리인상으로 5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.6%에서 4.2%로 0.6%p 상승하면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산을 은행 예치 시에 적용받는 61개월분 협정금리는 최저 4.2%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.
- 또한 채권수익률 역시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현재 수익률은 3.4%이지만 금리인상으로 최저 4.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는 예금금리 및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21세기경제보도, 10/25)